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2.6.22.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숭이두창 감염병 정보와 예방 행동 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숭이두창이란?

-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두창"으로 명명함.
- 원숭이두창에 감염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 됨.
- 2022년 5월 이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도 점차 증가함.
-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원숭이두창을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 강화함.

2. 감염경로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가능.
- 비말 :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피부병변 부산물 :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공기 :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3. 증상

- 잠복기 : 5~21일(평균 7~14일)
- 증상 : 발열(38도 이상),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부종, 오한, 피로, 발진 (발열 후 약 1~3일 내에 발생하며 반점(Macules), 구진(Papules), 수포(Vesicles), 농포(Pustules), 가피(Scabs)의 단계로 진행)
- 치명률 : 일반적으로 약 1~10%로 알려져 있으며, WHO에 최근 치명률은 3~6%로 보고됨.

4. 치료법

-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으며, 감염된 사람은 격리 입원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 활용 가능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리비리바트 도입 예정)
-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후 예후는 이전의 예방접종력, 감염 초기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

5. 예방 및 행동요령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확인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섭취금지
 - 해당 지역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 증상자의 물건, 두창 발생지역의 야생동물 접촉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2022년 6월 28일

금 모 래 초 등 학 교 장